중2 역사 W27

인도에서 발전한 무굴 제국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무굴 제국의 황제들은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황제는 자신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 문화가 만난 모습은 언어와 종교, 타지마할 같은 건축물에도 남아 있어요.



예상 질문 16개 확인 문제 24개 정답·해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단원의 지도

주요 황제와 질문을 잇는 단원 지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대 바부르



1526년 건국

무굴 제국 건국

Q01~Q04

3대 아크바르



1556~1605년

종교 관용
중앙 집권 체제

Q05~Q08

5대 샤 자한



1628~1658년

타지마할 건설

Q15~Q16

6대 아우랑제브



1658~1707년

남부로 영토 확대
지즈야 부활

Q09~Q11

18세기 쇠퇴 ·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

2대·4대는 생략 · 시간축 간격은 실제 기간과 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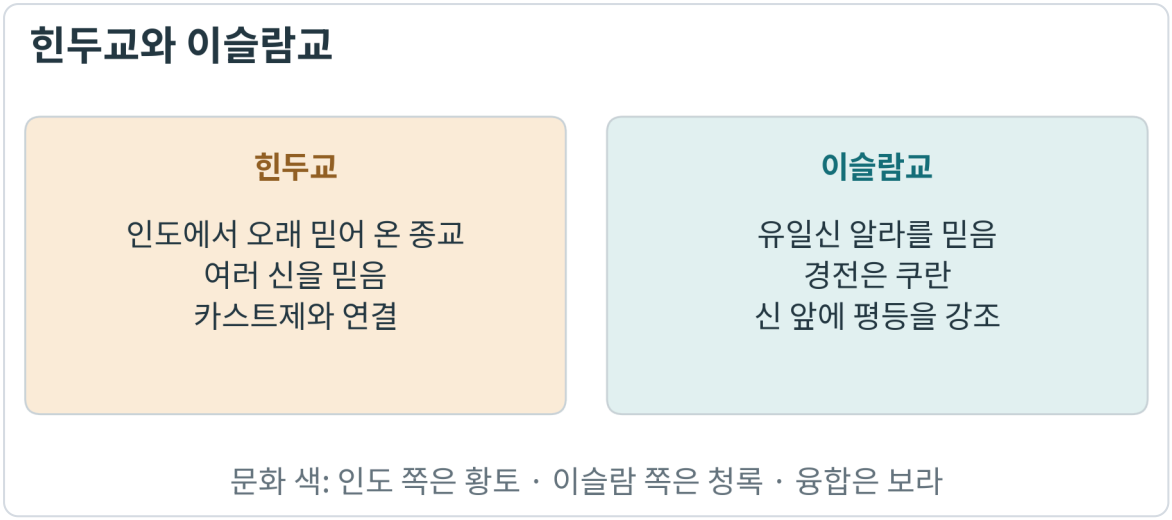
① 무굴 제국의 성립 — 인도에 어떤 나라가 들어섰을까? Q01~Q04

② 아크바르의 통치 —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어떻게 협력했을까? Q05~Q08

③ 영토 확대와 쇠퇴 — 넓어진 제국은 왜 흔들렸을까? Q09~Q11

④ 인도·이슬람 문화 — 다른 문화가 만나 무엇이 생겼을까?
시크교 · 우르두어 · 타지마할 | Q12~Q16

> 초상화는 무굴 시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2대 후마윤과 4대 자한기르는 생략했어요. 바부르와 아크바르의 초상화는 두 황제가 죽은 뒤 무굴 시대에 그려졌어요.



> 문화 그림에서는 황토색을 인도 쪽, 청록색을 이슬람 쪽, 보라색을 두 문화가 만나 발전한 사례에 사용해요. 지도에 쓰는 녹색은 시대별 영역을 구별하는 색이에요.

먼저 알아 둘 말

말	쉬운 뜻
왕조	한 집안이 왕위를 이어 가며 다스리는 나라
제국	여러 지역과 사람들을 넓게 지배하는 나라
황제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
이슬람교도·힌두교도	각각 이슬람교·힌두교를 믿는 사람
관용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재정	나라가 돈을 마련하고 쓰는 일

① 무굴 제국의 성립

인도에 어떤 나라가 들어섰을까?

Q01 인도에는 무굴 제국이 생기기 전부터 이슬람 왕조가 있었나요?

답 **네. 무굴 제국보다 앞선 13세기부터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들이 인도 북부를 다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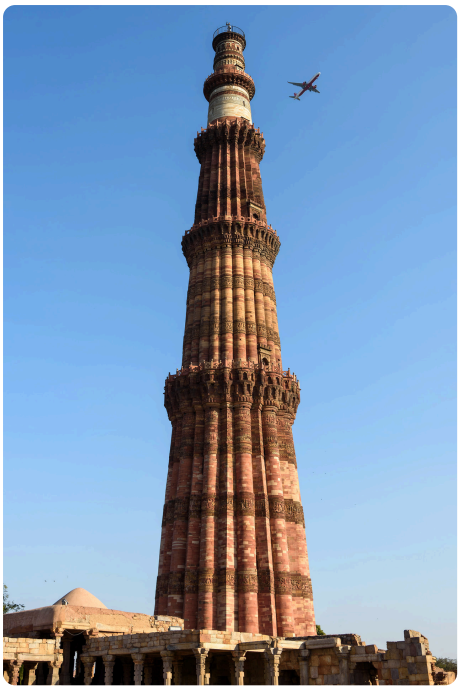
낱말 풀이

술탄	이슬람 세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
칭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
세력	다른 사람이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힘
진출	활동하거나 지배하는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넓힘

인도에는 오래전부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서쪽과 북서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어요. 8세기에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 북서부를 정복하기 시작했고, 이후 진출 범위가 넓어졌어요.

13세기에는 인도 북부의 도시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세워졌어요. 델리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 왕조들을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불러요.

무굴 제국은 인도에 처음 나타난 이슬람 왕조가 아니에요. 이미 이슬람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을 바부르가 차지하면서 새 왕조를 세운 것이에요.



델리의 쿠트브 미나르는 무굴 제국보다 앞선 이슬람 통치 시기의 유적이에요. 사진에서 높이 솟은 붉은 돌탑이 보여요. 무굴 제국이 생기기 전에도 델리에 이슬람 왕조가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돼요.

Q02 바부르는 어디에서 와서 무굴 제국을 세웠나요?

답 **중앙아시아 출신의 바부르가 인도 북부로 진출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1526년에 무굴 제국을 세웠어요.**

낱말 풀이		
	중앙아시아	아시아 대륙의 가운데, 인도 북쪽과 북서쪽의 넓은 지역
	거점	군대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

바부르는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다투다가 카불을 거점으로 삼았어요. 카불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도시예요.

바부르는 인도 북부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델리 부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 결과 델리와 아그라 같은 중요한 도시를 차지하며 무굴 제국의 기초를 세웠어요. 처음부터 인도 전역을 한꺼번에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세운 곳



화살표: 바부르의 인도 북부 진출 방향

당시 국경은 생략 · 강줄기는 간단히 표시

> 카불은 델리의 북서쪽에 있고, 아그라는 델리의 남동쪽에 있어요. 화살표는 바부르가 카불을 거점으로 인도 북부에 진출한 방향을 나타내요. 실제 군대의 이동 경로를 모두 그린 것은 아니에요.

Q03 ‘무굴’이라는 이름은 몽골과 관계가 있나요?

답 **‘무굴’은 몽골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며, 바부르는 칭기즈 칸과 티무르의 후손이었어요.**

낱말 풀이		
	혈통	조상에게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집안의 계통

칭기즈 칸은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부르는 어머니 쪽으로 칭기즈 칸, 아버지 쪽으로 티무르의 혈통을 이었어요. 티무르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나라를 세운 정복자예요.

이름에 몽골과의 관계가 남아 있어도, 무굴 제국은 16세기에 인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13세기에 칭기즈 칸이 세운 몽골 제국과는 시기와 중심 지역이 달라요.

비교	몽골 제국	무굴 제국
세운 사람	칭기즈 칸	바부르
성립 시기	13세기	16세기, 1526년
나라의 중심 지역	몽골 초원	인도 북부

Q04 이슬람 왕조라면 백성도 모두 이슬람교도였나요?

답 **무굴 제국의 황제와 지배층은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백성 가운데에는 힌두교도가 많았어요.**

낱말 풀이		
	지배층	사회를 다스리며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이슬람 왕조라는 말은 황제와 통치의 중요한 바탕이 이슬람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종교를 믿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도에는 종교뿐 아니라 언어와 생활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황제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을 얻는 일이 중요했어요. 무굴 제국 황제들의 종교 정책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까닭이에요.

② 아크바르의 통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어떻게 협력했을까?

Q05 아크바르는 무굴 제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요?

답 **아크바르는 인도 북부의 넓은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방면으로 세력을 넓히고, 통치 제도를 정비해 제국의 기틀을 다졌어요.**

낱말 풀이

기틀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시키는 바탕
정비	제도나 조직을 잘 갖추고 고침
중앙 집권 체제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체제

바부르가 나라를 세웠다면, 뒤에 **3대 황제**가 된 **아크바르**는 무굴 제국이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도록 힘썼어요. 그는 정복 전쟁과 지역 지배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토를 넓혔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는 않아요. 세금을 거두고, 관리를 두고, 군대를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해요. 아크바르는 이런 통치 체제를 정비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었어요.

Q06 아크바르는 왜 힌두교도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나요?

답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에서 종교 차이로 생기는 갈등을 줄이고, 여러 사람의 협력을 얻어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기 때문이에요.**

낱말 풀이

관용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아크바르는 자신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모두 멀리하지 않았어요.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도 존중하는 **종교 관용 정책**을 폈어요. 다른 믿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적용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황제가 힌두교를 믿는 지역 지배자를 무조건 배제(참여하지 못하게 함)하면 그 지역을 다스릴 협력자를 얻기 어려워요. 반대로 종교가 달라도 함께 나랏일을 할 수 있게 하면 협력할 여지가 커져요.



그림 위쪽 오른편의 붉은 차양 아래, 노란 옷을 입고 앉은 사람이 아크바르예요. 그 아래에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크바르의 종교 토론을 표현한 무굴 시대의 그림으로, 『아크바르나마』에 실려 있어요. 왼쪽 위의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유럽에서 온 크리스트교 선교사예요. 모든 인물의 종교를 옷만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체스터 비티 소장)

Q07 지즈야를 폐지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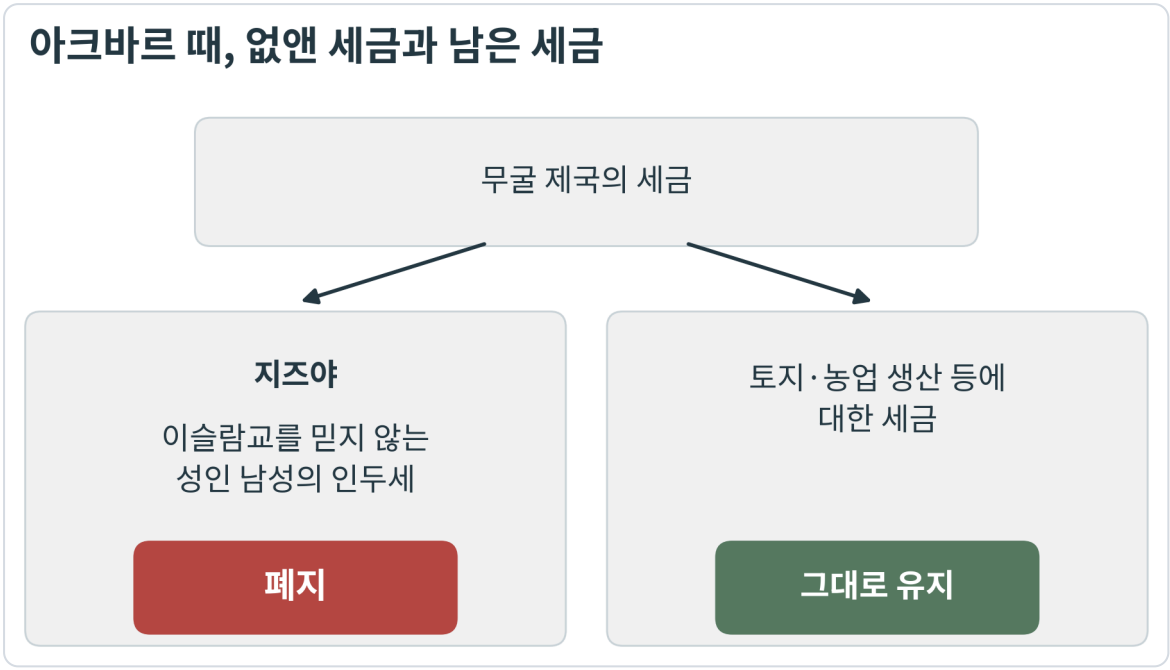
답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성인 남성에게 부과하던 인두세인 지즈야를 없앴다는 뜻이에요.**

낱말 풀이

인두세	사람을 단위로 매기는 세금
지즈야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성인 남성에게 부과하던 인두세
부과	세금 등을 내도록 부담을 지움
폐지	제도나 규칙을 없앰

여성·어린이 등은 지즈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아크바르는 지즈야를 폐지했어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던 세금을 없앴으므로, 힌두교도 등의 부담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었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없앤 것은 아니에요. 토지와 농업 생산 등에 대한 세금은 남아 있었어요.



Q08 힌두교도 왕비를 맞이하고 관리를 뽑은 일도 통치와 관계가 있나요?

답 **힌두교도 유력 가문과 관계를 맺고 힌두교도를 고위 관리로 등용한 일은, 그들의 협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낱말 풀이		
	유력 가문	한 지역에서 큰 힘을 가진 집안

당시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결혼인 동시에 두 집안이 정치적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아크바르는 힌두교도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또 힌두교도를 높은 관리 자리에 등용(뽑아 씀)하기도 했어요. 그 지역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제국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② 정리: 아크바르의 관용 정책 3가지

아크바르의 정책	통치에 도움이 된 점
지즈야 폐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던 세금 부담을 줄임
힌두교도 왕비를 맞이함	힌두교도 유력 가문과 정치적 관계를 맺음
힌두교도를 고위 관리로 등용	종교가 다른 사람도 통치에 참여하게 함

③ 영토 확대와 쇠퇴

넓어진 제국은 왜 흔들렸을까?

Q09 아우랑제브 때 영토가 넓어졌는데 왜 재정은 어려워졌나요?

답 **인도 남부 대부분까지 영토를 넓혔지만,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넓은 지역을 지키는 데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낱말 풀이		
	재정	나라가 돈을 마련하고 쓰는 일

아우랑제브는 17세기 후반에 인도 남부로 정복 활동을 확대했어요. 그의 통치기에 무굴 제국의 영토는 가장 넓어졌어요.

전쟁에는 군인에게 줄 돈과 식량, 말과 무기 등이 필요해요. 새로 차지한 땅에서도 저항이 계속되면 군대를 오래 머물게 해야 해요. 영토가 커져도 전쟁과 통치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지면 나라의 재정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굴 제국의 영역 확대



아크바르 통치 말기

아우랑제브 때 확대된 범위

진한 초록 + 연한 초록 = 아우랑제브 때의 최대 영토

대략적인 지배 범위 · 오늘날의 국경선은 생략

> 색칠한 곳은 두 황제의 통치 말기에 무굴 제국이 지배한 대략적인 범위예요. 아우랑제브 때에는 아크바르 때보다 남쪽으로 넓어졌어요. 인도 반도 맨 남쪽과 스리랑카까지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지도는 시대별 지배 범위를 단순화했으며 오늘날의 국경선은 생략했어요.

Q10 아우랑제브의 종교 정책은 아크바르와 어떻게 달랐나요?

답 **아우랑제브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 지즈야를 부활시키고 다른 종교의 사원을 파괴하기도 했어요.**

낱말 풀이

이슬람 제일주의	이슬람교를 다른 종교보다 앞세우는 정책
부활	없어진 제도를 다시 시행함
사원	종교 의식을 하는 건물
반란	나라나 지배자에 맞서 힘으로 저항함

아우랑제브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 아크바르가 없앤 지즈야를 다시 거두었어요.

힌두교 사원 등 다른 종교의 사원을 파괴한 일도 있었어요. 이런 정책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불만을 키웠어요.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





	아크바르	아우랑제브
시기	1556~1605년	1658~1707년
영토	북인도·아프가니스탄	인도 남부 대부분까지 최대 영토
종교 정책	종교 관용	이슬람 제일주의
지즈야	폐지	부활
힌두교도 대우	고위 관리 등용 왕비를 맞이함	힌두교 사원 등을 파괴하기도 함
결과	다양한 주민의 협력 통치 안정에 도움	갈등·반발 증가 전쟁 비용도 부담

> 두 초상화는 무굴 시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두 황제 모두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다른 종교를 대하는 정책은 달랐어요.

아우랑제브 때의 반란에는 종교 문제뿐 아니라 지역의 권력 다툼과 오랜 전쟁도 얽혀 있었어요. 종교 정책과 재정 부담이 함께 나라를 흔든 것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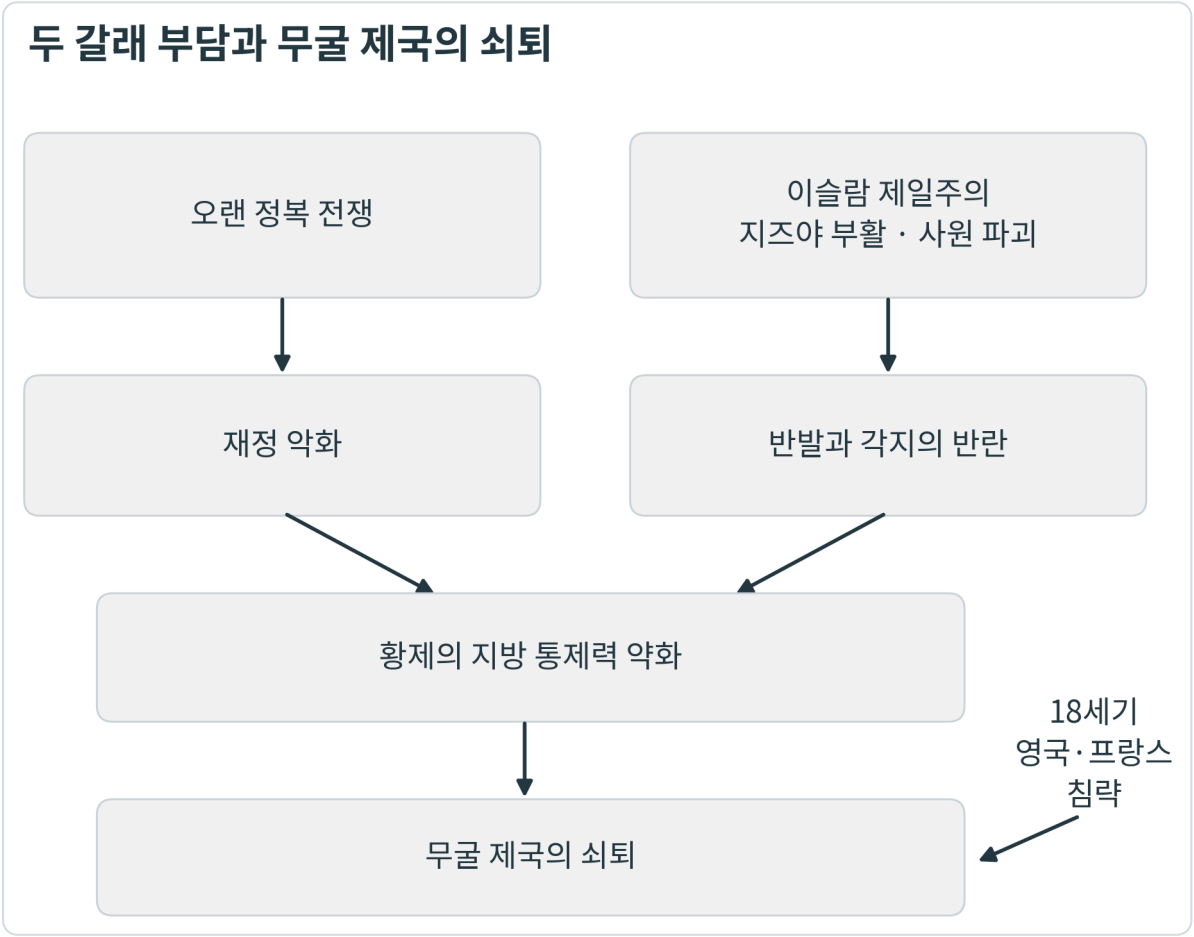
Q11 무굴 제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쇠퇴했나요?

답 **오랜 전쟁과 재정 악화, 종교 갈등과 각지의 반란으로 약해졌고, 18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이 겹치며 더욱 쇠퇴했어요.**

낱말 풀이		
	쇠퇴	힘이나 세력이 점차 약해짐
	영국·프랑스	유럽의 나라들. 인도와 무역하러 왔음

넓은 지역에서 저항과 반란이 일어나면 이를 누르는 데 다시 군대와 돈이 필요해요. 황제가 지방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져요.

아우랑제브가 죽은 뒤에는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제국의 통치력이 더욱 약해졌어요. 이 틈에 영국과 프랑스는 무역 활동을 넘어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와 나라가 가장 안정된 때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에요. 지도에서는 지배한 땅의 넓이를, 통치 과정에서는 그 땅을 유지할 힘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4 인도·이슬람 문화

다른 문화가 만나 무엇이 생겼을까?

Q12 인도·이슬람 문화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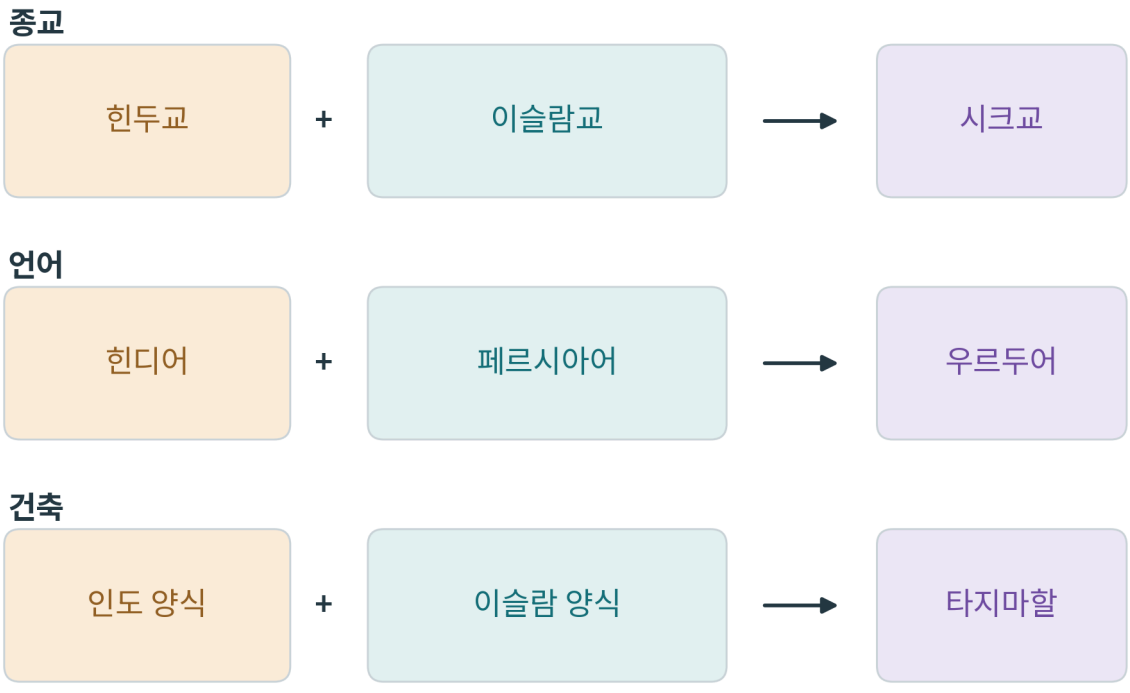
답 **인도의 기존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문화예요.**

낱말 풀이		
	융합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어우러짐
	장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
	왕래	사람들이 오고 감

무굴 제국에서는 인도의 언어와 종교, 건축 전통에 이슬람 세계의 문화가 더해졌어요. 왕실과 도시에서 여러 배경의 사람과 장인이 함께 활동한 것도 이런 만남을 도왔어요.

교과서에서 종교는 **시크교**, 언어는 **우르두어**, 건축은 **타지마할**을 대표 사례로 드는 까닭이에요. 이 문화들이 모두 한 황제의 명령으로 같은 해에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왕래와 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했어요.

인도·이슬람 문화의 세 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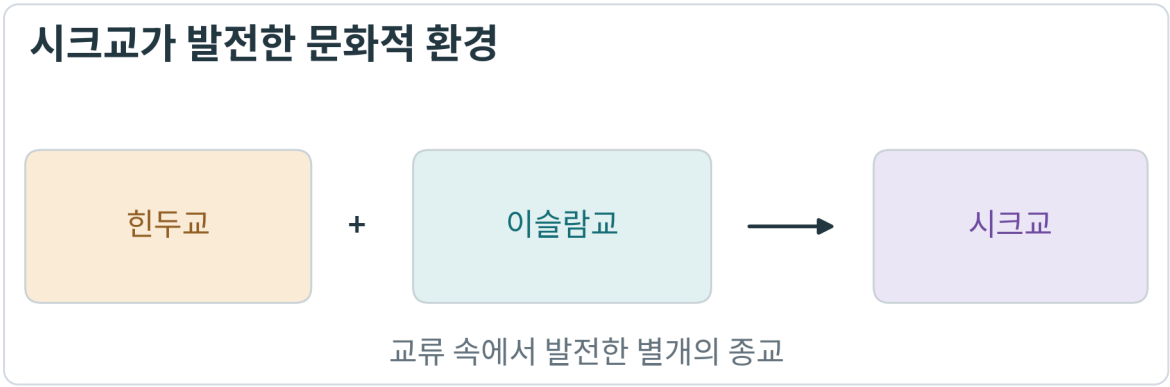
Q13 시크교는 어떤 가르침을 강조했나요?

답 **시크교는 유일신을 믿고,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 차별에 반대했어요.**

낱말 풀이		
	유일신	하나뿐인 신
	카스트제	태어난 집단에 따라 신분과 생활을 구분하고 차별한 인도의 사회 질서

시크교는 출신 신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데 반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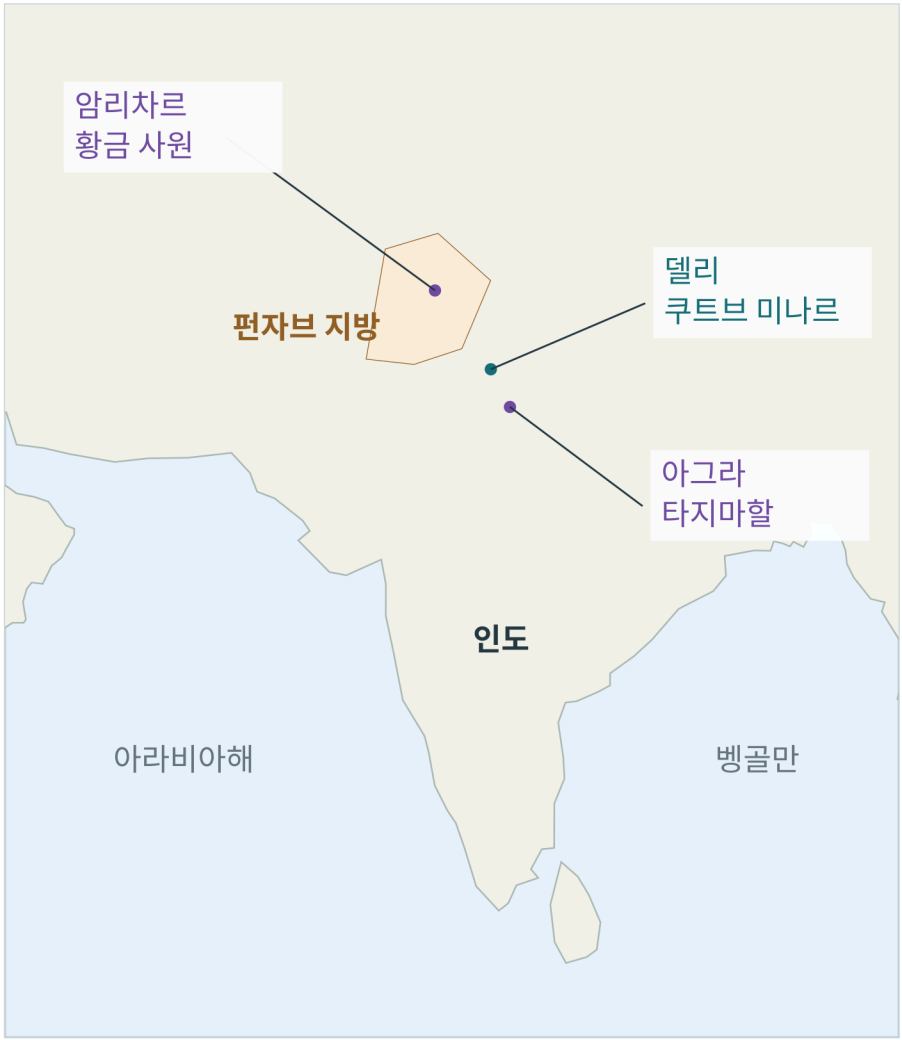
시크교는 인도 북서부의 펀자브 지역에서 나나크(시크교를 처음 연 사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만나 영향을 주고받던 환경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두 종교가 융합된 사례로 설명해요. 시크교는 자체의 가르침을 가진 별개의 종교예요.





> 펀자브 지방의 도시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 사원은 시크교의 중요한 종교 시설이에요.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물 가운데 금빛 건물이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진은 오늘날의 모습으로, 시크교가 처음 생길 때의 건물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와 문화 유적의 위치



청록: 이슬람 유적 · 보라: 문화 융합의 사례

황토색 칸: 펀자브 지방

펀자브는 인도 북서부의 넓은 지방이에요.

지방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표시 · 현대 국경은 생략

> 델리의 쿠트브 미나르, 아그라의 타지마할, 펀자브 지방 암리차르의 황금 사원을 위치와 함께 표시했어요. 문화 유적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이며, 세 유적이 같은 시기에 세워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Q14 페르시아어와 우르두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답** **페르시아어는 무굴 제국의 공용어로 쓰였고, 우르두어는 인도 북부의 힌디어와 페르시아어가 어우러지며 발전했어요.**

낱말 풀이		
	공용어	나라의 공식 업무 등에 사용하는 언어

페르시아어는 오늘날 이란과 연결되는 페르시아 지역의 언어예요. 무굴 제국에서는 관리들이 공식 문서를 작성하고 왕실에서 학문과 문학을 다룰 때 널리 사용했어요.

한편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어요. 인도 북부의 힌디어 계통 말에 페르시아어의 낱말과 표현이 더해지며 **우르두어**가 발전했어요. 교과서에서는 이를 '힌디어와 페르시아어가 합쳐진 언어'로 설명해요.

페르시아어와 우르두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어떤 말	페르시아 지역의 언어	힌디어와 페르시아어의 교류 속에서 발전
누가·어디서	관리·공식 문서·왕실	사람들의 일상생활
시험 열쇠말	공용어	융합된 언어

공용어가 페르시아어였다고 모든 백성이 일상에서 페르시아어만 쓴 것은 아니에요. 우르두어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말이 함께 쓰였어요.

Q15 타지마할은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나요?

답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죽은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아그라에 세운 무덤 건축물이에요.**

낱말 풀이		
	추모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기억함
	대리석	다듬어 건축이나 조각에 쓰는 무늬가 아름다운 돌

타지마할의 중심 건물은 무덤을 품은 건축물(묘당)이에요. 황제가 살아가던 궁전이 아니에요.

샤 자한은 아크바르보다 뒤, 아우랑제브보다 앞에 나라를 다스렸어요. 17세기에 세운 타지마할에는 흰 대리석과 정교한 장식이 사용되었어요.



사진 가운데의 흰 건물은 타지마할의 중심 무덤 건축물이에요. 큰 둥근 지붕과 그 둘레의 가느다란 탑, 앞쪽의 정원과 수로가 보여요. 정면에서 바라본 실제 컬러 사진이에요.

Q16 타지마할에서는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어우러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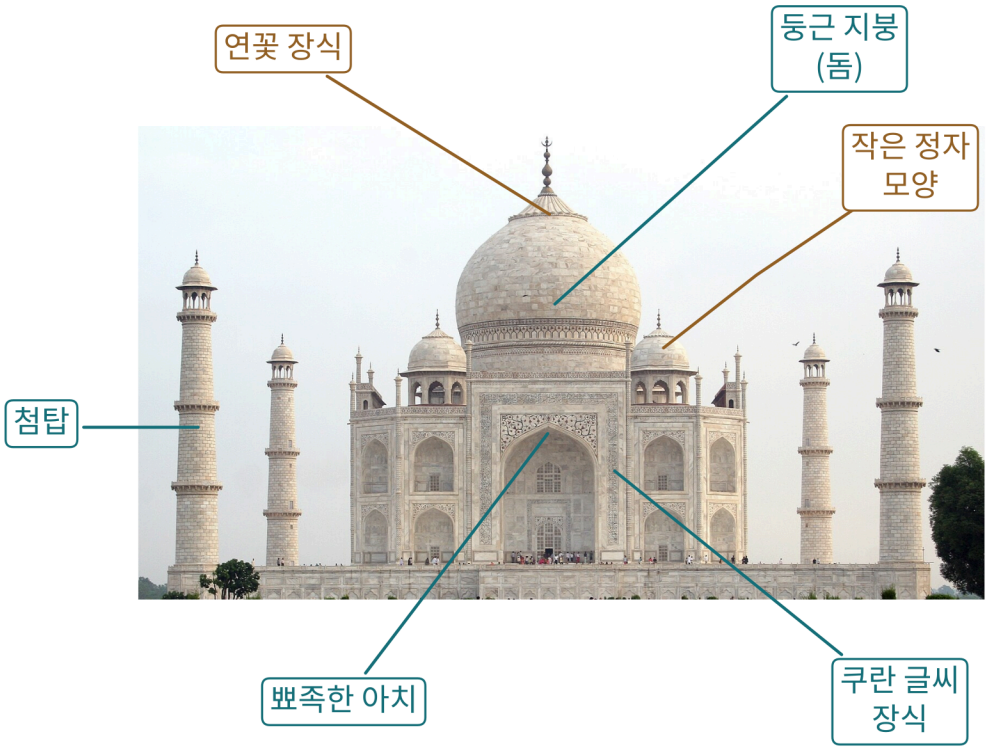
답 **이슬람 양식인 돔·아치·첨탑·쿠란 글씨 장식에, 인도 양식인 연꽃 장식과 작은 정자가 어우러져 있어요.**

낱말 풀이		
	돔	둥글게 솟은 지붕
	아치	문이나 통로의 윗부분을 곡선 모양으로 만든 구조
	쿠란	이슬람교의 경전
	정자	기둥 위에 지붕을 얹어 만든 비교적 작은 건물

타지마할의 큰 돔과 뾰족한 아치, 둘레의 가느다란 **첨탑**(높고 뾰족한 탑), **쿠란** 구절을 이용한 장식은 이슬람 건축 문화와 연결돼요.

큰 돔 위에는 연꽃잎 모양의 장식이 있고, 주위에는 기둥과 작은 지붕을 갖춘 정자 모양의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요소는 인도 건축의 전통과 연결돼요.

타지마할에서 만난 두 건축 문화



청록: 이슬람 양식 황토: 인도 양식

> 큰 돔 꼭대기를 감싼 꽃잎 모양 부분은 연꽃 장식이에요. 큰 돔 둘레의 작은 지붕과 기둥은 정자 모양의 요소를 보여 줘요. 이슬람 문화와 연결한 요소는 청록색, 인도 건축 전통과 연결한 요소는 황토색 이름표로 표시했어요. 한 요소가 한 문화에만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Q15의 타지마할 사진을 확대해 표시)



> 아치 둘레의 짙은 글씨는 쿠란 구절을 이용한 장식이에요. 글씨 가까이에 있는 식물 무늬도 함께 보여요. 정면 사진에서 작게 보였던 벽면 장식을 가까이에서 찍은 실제 사진이에요.

한 장 정리

① 황제 정리

무굴 제국 네 황제 한 장 정리

	1대 바부르	3대 아크바르	5대 샤 자한	6대 아우랑제브
				
시기	1526년 건국	1556~1605년	1628~1658년	1658~1707년
한 일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림	종교 관용 중앙 집권 체제	타지마할 건설	남부로 영토 확대 지즈야 부활
열쇠말	**건국**	**종교 관용**	**왕비 추모**	**최대 영토 종교 갈등**

> 네 초상화는 무굴 시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바부르와 아크바르의 초상화는 두 황제가 죽은 뒤 그려졌어요.

② 문화 정리

분야	만난 문화	발전한 사례·열쇠말
종교	힌두교 + 이슬람교	시크교: 유일신 강조·카스트 차별 반대
언어	힌디어 +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무굴 제국의 공용어는 페르시아어
건축	인도 양식 + 이슬람 양식	타지마할: 샤 자한이 왕비를 추모한 무덤 건축물

확인 문제

01~20. 맞는 답을 하나만 고르세요.

01 **무굴 제국이 세워지기 전 인도 북부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① 몽골 제국의 수도가 델리로 옮겨졌어요.

②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들이 이어졌어요.

③ 아크바르가 이미 지즈야를 부활시켰어요.

④ 샤 자한이 이미 타지마할을 세웠어요.

02 **1526년 무굴 제국을 세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아크바르가 이란에서 와서 무굴 제국을 세웠어요.

② 샤 자한이 몽골 초원에 무굴 제국을 세웠어요.

③ 아우랑제브가 인도 남부에 무굴 제국을 세웠어요.

④ 바부르가 중앙아시아에서 와서 무굴 제국을 세웠어요.

03 **무굴 제국과 몽골 제국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바부르의 혈통은 몽골과 이어지지만 두 제국의 성립 시기와 중심 지역은 달라요.

② 무굴 제국은 칭기즈 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수도만 델리로 옮긴 나라예요.

③ 몽골 제국은 16세기 인도에서, 무굴 제국은 13세기 몽골에서 시작되었어요.

④ 무굴이라는 이름은 몽골과 관계가 없으며 바부르도 칭기즈 칸과 무관해요.

04 **무굴 제국의 지배층과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황제와 백성이 모두 힌두교를 믿었어요.

② 황제는 힌두교를, 모든 백성은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③ 황제는 이슬람교를 믿었고 백성 중에는 힌두교도가 많았어요.

④ 황제는 시크교를 믿었고 힌두교도는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05 **아크바르가 무굴 제국의 기틀을 다진 방법으로 맞는 것은?**

① 영토를 넓히고 세금·관리·군대의 통치 제도를 정비했어요.

② 인도 남부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모든 세금을 없앴어요.

③ 지즈야를 부활시키고 힌두교도의 관리 임명을 막았어요.

④ 영국과 프랑스에 지방 통치를 맡기고 전쟁을 끝냈어요.

06 **아크바르가 종교 관용 정책으로 얻으려 한 효과는 무엇인가요?**

① 힌두교도를 모두 이슬람교도로 바꾸어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 했어요.

② 종교 갈등을 줄이고 힌두교도 등의 협력을 얻어 통치를 안정시키려 했어요.

③ 힌두교도 관리를 모두 내보내고 황제와 같은 종교의 사람만 쓰려 했어요.

④ 지즈야를 다시 거두어 힌두교도에게 전쟁 비용을 모두 맡기려 했어요.

07 **지즈야의 뜻으로 맞는 것은?**

① 농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모든 농민에게 거두는 세금이에요.

② 왕비의 무덤을 세울 때 장인의 물건에만 매기는 세금이에요.

③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사람 수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에요.

④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성인 남성에게 부과하던 인두세예요.

08 **아크바르가 지즈야를 폐지한 뒤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① 힌두교도는 관리를 맡는 대신 지즈야를 두 배로 냈어요.

② 나라의 모든 세금이 없어져 농업 관련 세금도 사라졌어요.

③ 종교에 따라 내던 인두세는 없어졌지만 다른 세금은 남았어요.

④ 이슬람교도가 된 사람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었어요.

09 **아크바르가 힌두교도 왕비를 맞이하고 힌두교도를 높은 관리로 쓴 일의 공통점은?**

① 힌두교도 유력 가문을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했어요.

② 힌두교도 유력 가문과 관계를 맺고 통치에 참여하게 했어요.

③ 황제가 힌두교로 바꾸고 이슬람교를 금지했음을 보여 줘요.

④ 황제가 지방 통치를 포기하고 관리 제도를 없앴음을 보여 줘요.

10 **다음 정책을 시행한 황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지즈야를 폐지하고 힌두교도를 고위 관리로 등용했어요.
(나)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지즈야를 부활시켰어요.

① (가) 아크바르 — (나) 아우랑제브
② (가) 아우랑제브 — (나) 아크바르
③ (가) 바부르 — (나) 샤 자한
④ (가) 샤 자한 — (나) 바부르

11 **아우랑제브 때 영토가 넓어졌는데 재정이 어려워진 까닭은?**

① 영토를 넓힌 뒤 모든 군대를 없애 세금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② 지즈야와 토지세를 모두 없애 나라의 세금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③ 오랜 정복 전쟁과 넓어진 지역을 지키는 데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④ 새로 얻은 땅을 영국과 프랑스에 넘겨 통치할 지역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12 **무굴 제국이 쇠퇴한 과정으로 맞는 것은?**

① 종교 관용으로 힌두교도 관리가 늘자 중앙의 통치 제도가 곧바로 사라졌어요.
② 지즈야 폐지로 모든 세금 수입이 없어지자 아크바르 때 제국이 멸망했어요.
③ 아우랑제브가 인도 남부에서 철수하자 전쟁 비용이 늘고 영토가 줄었어요.
④ 전쟁·갈등·반란으로 통치력이 약해지고 18세기 서양 세력의 침략이 겹쳤어요.

13 **인도·이슬람 문화의 사례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종교 — 시크교 / 언어 — 우르두어 / 건축 — 타지마할
② 종교 — 우르두어 / 언어 — 시크교 / 건축 — 타지마할
③ 종교 — 시크교 / 언어 — 타지마할 / 건축 — 우르두어
④ 종교 — 타지마할 / 언어 — 우르두어 / 건축 — 시크교

14 **시크교의 가르침으로 맞는 것은?**

① 여러 신을 믿고 태어난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② 황제가 믿는 종교에 따라 신분이 저절로 바뀐다고 가르쳤어요.

③ 하나의 신을 믿고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 차별에 반대했어요.

④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했어요.

15 **무굴 제국의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힌디어가 사라진 뒤 페르시아어만 모든 백성의 일상 언어가 되었어요.

② 우르두어가 공용어였고 페르시아어는 인도에서 새로 만들어졌어요.

③ 시크교가 공식 문서의 언어였고 힌디어는 건축 양식의 이름이었어요.

④ 페르시아어가 공용어였고 그 영향을 받아 인도에서 우르두어가 발전했어요.

16 **자료의 황제들과 다음 업적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1526년 무굴 제국을 세움
(나) 지즈야 폐지·힌두교도 관리 등용
(다) 왕비를 추모해 타지마할을 세움
(라) 인도 남부로 영토 확대·지즈야 부활

자료: 무굴 제국의 황제들



바부르



아크바르



샤 자한



아우랑제브

① (가) 아크바르 / (나) 바부르 / (다) 샤 자한 / (라) 아우랑제브
② (가) 바부르 / (나) 아크바르 / (다) 샤 자한 / (라) 아우랑제브
③ (가) 바부르 / (나) 샤 자한 / (다) 아크바르 / (라) 아우랑제브
④ (가) 바부르 / (나) 아크바르 / (다) 아우랑제브 / (라) 샤 자한

17 자료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료: 인도의 건축물



① 바부르가 군사 훈련을 위해 카불에 세운 성이에요.

② 아크바르가 매일 나랏일을 보려고 델리에 세운 궁전이에요.

③ 샤 자한이 죽은 왕비를 추모하려고 아그라에 세운 무덤이에요.

④ 아우랑제브가 관리의 시험을 치르려고 남부에 세운 학교예요.

18 타지마할의 건축 요소와 문화적 연결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돔·아치 — 인도 건축 / 연꽃 장식·정자 모양 — 이슬람 건축

② 쿠란 글씨·돔 — 인도 건축 / 연꽃 장식·아치 — 이슬람 건축

③ 돔·정자 모양 — 이슬람 건축 / 아치·연꽃 장식 — 인도 건축

④ 돔·첨탑 — 이슬람 건축 / 연꽃 장식·정자 모양 — 인도 건축

19 지도에서 아크바르 때와 비교한 아우랑제브 때의 영역을 바르게 읽은 것은?

자료: 두 시기의 무굴 제국



아크바르 통치 말기

아우랑제브 때 확대된 범위

대략적인 지배 범위 · 오늘날의 국경선은 생략

① 영역이 인도 북부의 델리 부근으로만 줄어들었어요.

② 인도 반도의 남쪽으로 제국의 지배 범위가 넓어졌어요.

③ 인도 반도 맨 남쪽과 스리랑카까지 모두 지배했어요.

④ 카불과 델리를 잃고 스리랑카만 차지하게 되었어요.

20 **다음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아우랑제브가 지즈야를 부활시킴
(나)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세움
(다) 18세기 영국·프랑스의 침략이 확대됨
(라) 아크바르가 종교 관용 정책을 폄

① (나) → (라) → (가) → (다)
② (라) → (나) → (다) → (가)
③ (나) → (가) → (라) → (다)
④ (다) → (나) → (라) → (가)

2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크바르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인두세인 ( )를 폐지했지만, 아우랑제브는 이를 부활시켰어요.

22 **설명에 맞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보기: 시크교 · 페르시아어 · 우르두어 · 힌디어 · 힌두교

(가) 무굴 제국에서 공식 업무에 사용한 공용어: ( )

(나) 힌디어와 페르시아어가 어우러져 발전한 언어: ( )

(다) 유일신을 강조하고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에 반대한 종교: ( )

23 아크바르가 힌두교도에게 관용을 베푼 일이 통치를 안정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_____

24 “땅이 넓어지면 나라 살림도 반드시 좋아진다”는 말이 아우랑제브 때의 상황에 맞지 않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_____

정답·해설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01	②	11	③
02	④	12	④
03	①	13	①
04	③	14	③
05	①	15	④
06	②	16	②
07	④	17	③
08	③	18	④
09	②	19	②
10	①	20	①

21. 지즈야

22. (가) 페르시아어, (나) 우르두어, (다) 시크교

23. 종교 갈등을 줄이고 힌두교도 등의 협력을 얻어 통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24. 정복 전쟁과 넓어진 지역의 통치에 많은 돈이 들어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01 ②

13세기부터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들이 인도 북부를 다스렸어요.

> ① 델리는 몽골 제국의 수도로 옮겨진 곳이 아니에요.
>
> ③ 아크바르는 무굴 제국의 황제이며 지즈야를 폐지했어요.
>
> ④ 샤 자한의 타지마할 건설은 무굴 제국이 세워진 뒤의 일이에요.

다시 읽기 Q01·Q07·Q15

02 ④

중앙아시아 출신의 바부르가 카불을 거점으로 인도 북부에 진출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세웠어요.

> ① 아크바르는 뒤에 영토를 넓히고 통치 제도를 정비했어요.
>
> ② 샤 자한은 타지마할을 세운 황제예요.
>
> ③ 아우랑제브는 뒤에 인도 남부로 영토를 넓혔어요.

다시 읽기 Q02·Q05·Q09·Q15

---

03 ①

바부르는 칭기즈 칸과 티무르의 후손이지만, 무굴 제국은 16세기 인도에서 성립한 별개의 나라예요.

> ② 수도만 옮긴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
> ③ 두 나라의 시기와 중심 지역을 서로 바꾼 설명이에요.
>
> ④ 무굴은 몽골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고 바부르는 어머니 쪽으로 칭기즈 칸의 후손이에요.

다시 읽기 Q03

---

04 ③

이슬람 왕조라는 말은 모든 백성이 이슬람교도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굴 제국에는 힌두교도가 많았어요.

> ① 황제는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주민에게 힌두교도가 많았다는 사실을 황제에게도 적용한 오답이에요.
>
> ② 황제와 주민의 종교를 뒤바꾸고 백성이 모두 같은 종교라고 했어요.
>
> ④ 무굴 황제는 이슬람교도였고 아크바르는 힌두교도도 고위 관리로 등용했어요.

다시 읽기 Q04·Q08

---

05 ①

아크바르는 인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방면으로 세력을 넓히고 통치 제도를 정비했어요.

> ② 인도 전역을 차지하지 않았고 다른 세금은 남아 있었어요.
> ③ 아크바르는 지즈야를 폐지하고 힌두교도도 등용했어요.
> ④ 영국·프랑스의 침략 확대는 뒤의 쇠퇴 과정과 연결돼요.

다시 읽기 Q05·Q07·Q08·Q11

---

06 ②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으면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 ① 관용은 다른 믿음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모두의 종교를 바꾸게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 ③ 힌두교도도 높은 관리로 등용했어요.
> ④ 아크바르는 지즈야를 폐지했어요.

다시 읽기 Q06~Q08

---

07 ④

지즈야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성인 남성에게 부과하던 인두세예요. 여성·어린이 등은 제외되었어요.

> ① 사람을 단위로 매기는 인두세와 농업 생산에 대한 세금을 혼동했어요.
> ② 특정 건축 공사나 장인의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에요.
> ③ 세금을 내는 사람의 종교를 반대로 설명했어요.

다시 읽기 Q07

---

08 ③

폐지한 것은 지즈야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토지·농업 생산 등에 대한 세금은 남아 있었어요.

> ① 지즈야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어요.
> ② 한 종류의 세금 폐지를 모든 세금의 폐지로 넓혀 읽었어요.
> ④ 지즈야 폐지는 토지 관련 세금을 이슬람교도에게만 매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7

---

09 ②

혼인은 유력 가문과 정치적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고, 관리 등용은 그들의 통치 참여를 넓혔어요.

> ① 배제한 정책이 아니라 협력을 얻은 정책이에요.
>
> ③ 종교 관용이 황제가 종교를 바꾸거나 이슬람교를 금지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
> ④ 통치에 협력자를 참여시킨 것이지 통치와 관리 제도를 없앤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8

---

10 ①

아크바르는 종교 관용 정책을 폈고, 아우랑제브는 지즈야를 다시 거두었어요.

> ② 두 황제의 정책을 서로 바꾸었어요.
>
> ③ 바부르는 건국, 샤 자한은 타지마할 건설과 연결돼요.
>
> ④ 샤 자한과 바부르를 정책의 주인공으로 잘못 연결했어요.

다시 읽기 Q07·Q10

---

11 ③

전쟁과 새 지역의 통치에는 군인·식량·무기 등을 마련할 비용이 계속 필요했어요.

> ① 군대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유지할 비용이 문제였어요.
>
> ② 아우랑제브는 지즈야를 부활시켰어요. 모든 세금을 없애지 않았어요.
>
> ④ 영토가 가장 넓어진 시기이며 통치할 지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9·Q10

---

12 ④

재정 악화와 각지의 반란으로 제국이 약해졌고 영국·프랑스의 군사적·정치적 진출이 겹쳤어요.

> ① 아크바르의 관용과 힌두교도 등용은 통치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어요.
>
> ② 다른 세금은 남았으며 아크바르 때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
> ③ 아우랑제브는 남부로 영토를 넓혔고 오랜 전쟁 비용이 부담이 되었어요.

다시 읽기 Q11

---

13 ①

시크교는 종교, 우르두어는 언어, 타지마할은 건축의 사례예요.

> ② 시크교와 우르두어의 분야가 바뀌었어요.
>
> ③ 우르두어와 타지마할의 분야가 바뀌었어요.
>
> ④ 시크교와 타지마할의 분야가 바뀌었어요.

다시 읽기 Q12

---

14 ③

시크교는 유일신을 강조하고 태어난 집단에 따른 신분 차별에 반대했어요.

> ① 유일신 신앙과 신분 차별 반대를 모두 거꾸로 설명했어요.
>
> ② 황제의 종교가 신분을 바꾼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
> ④ 페르시아어의 공용어 사용과 종교의 가르침을 혼동했어요.

다시 읽기 Q13

---

15 ④

공식 업무에는 페르시아어가 쓰였고, 교류 속에서 힌디어와 페르시아어가 어우러져 우르두어가 발전했어요.

> ① 여러 지역의 말이 함께 쓰였어요.
>
> ② 공용어를 잘못 짚었고 페르시아어는 페르시아 지역의 언어예요.
>
> ③ 시크교는 종교이고 힌디어는 언어예요.

다시 읽기 Q14

---

16 ②

바부르는 건국, 아크바르는 종교 관용, 샤 자한은 타지마할, 아우랑제브는 남부 영토 확대와 지즈야 부활로 연결돼요.

> ① 바부르와 아크바르의 업적을 서로 바꾸었어요.
>
> ③ 아크바르와 샤 자한의 업적을 서로 바꾸었어요.
>
> ④ 샤 자한과 아우랑제브의 업적을 서로 바꾸었어요.

다시 읽기 Q02·Q05~Q10·Q15

---

17 ③

자료는 타지마할이에요. 아그라에 있으며 중심 건물은 왕비를 추모해 세운 무덤 건축물이에요.

> ① 바부르의 카불 거점과 타지마할을 혼동했어요.
>
> ② 타지마할은 황제가 살던 궁전이 아니며 델리가 아니라 아그라에 있어요.
>
> ④ 관리 시험을 위한 학교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5

---

18 ④

교과서는 돔·아치·첨탑·쿠란 글씨를 이슬람 문화와, 연꽃 장식과 정자 모양을 인도 건축 전통과 연결해요.

> ① 교과서에서 짚는 두 문화의 대표 요소를 바꾸었어요.
>
> ② 쿠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며 연꽃 장식은 인도 건축 전통과 연결돼요.
>
> ③ 정자 모양은 인도 건축, 아치는 이슬람 건축의 대표 요소로 연결해요.

다시 읽기 Q16

---

19 ②

아우랑제브 때의 범위는 아크바르 때보다 인도 반도 남쪽으로 넓어져 있어요.

> ① 델리 부근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
> ③ 맨 남쪽 일부와 스리랑카는 색칠한 영역 밖이에요.
>
> ④ 지도에서 카불과 델리는 영역 안에 있고 스리랑카는 밖에 있어요.

다시 읽기 Q09

---

20 ①

16세기 바부르의 건국과 아크바르의 통치가 먼저이고, 뒤에 아우랑제브의 통치와 18세기의 쇠퇴가 이어져요.

> ② 아크바르의 통치가 바부르의 건국보다 앞서지 않아요.
>
> ③ 아크바르가 아우랑제브보다 먼저 다스렸어요.
>
> ④ 18세기 서양 세력의 침략 확대는 건국 이후예요.

다시 읽기 Q02·Q05·Q10·Q11

---

21 지즈야

같은 세금을 두고 아크바르는 폐지, 아우랑제브는 부활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을 폈어요.

다시 읽기 Q07·Q10

---

22 (가) 페르시아어, (나) 우르두어, (다) 시크교

페르시아어는 공용어, 우르두어는 여러 언어의 교류 속에서 발전한 말이에요. 시크교는 언어가 아니라 종교예요.

다시 읽기 Q13·Q14

---

23 예시 답

힌두교도와의 종교 갈등을 줄이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종교 갈등을 줄인다는 점이나 힌두교도 등의 협력을 얻는다는 점을 통치의 안정과 연결하면 맞아요. “황제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나랏일에 참여해 협력하게 되었어요”라고 써도 돼요. “모두 이슬람교를 믿게 했다”는 답은 관용의 뜻과 달라요.

다시 읽기 Q06·Q08

---

24 예시 답

영토는 넓어졌지만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새 지역을 지키는 데 많은 돈이 들어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전쟁이나 넓은 지역을 유지하는 비용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면 맞아요. “땅이 넓어져 군대와 식량에 드는 돈도 많아졌어요”라고 써도 돼요. “세금을 모두 없앴기 때문”이라는 답은 사실과 달라요.

다시 읽기 Q09·Q11

그림 출처

원고 안 위치	작품·사진 이름	작가·촬영자	소장처·공개처	원문·이용 조건
연표·확인 16·한 장 정리의 바부르	『티무르 가문의 왕자들』 속 바부르	미르 사이이드 알리	영국박물관	원문 ·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2차원 미술품의 충실한 복제
연표·Q10·확인 16·한 장 정리의 아크바르	사자와 송아지와 함께 있는 아크바르	고바르단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원문 · Public Domain / 미술관 Open Access(CC0)
연표·확인 16·한 장 정리의 샤 자한	말을 탄 샤 자한	파야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원문 · Public Domain / 미술관 Open Access(CC0)
연표·Q10·확인 16·한 장 정리의 아우랑제브	아우랑제브 황제의 초상	작자 미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원문 · Public Domain / 미술관 Open Access(CC0)
Q01의 쿠트브 미나르 사진	쿠트브 미나르 전경	Mustang Joe(Joe deSousa)	델리 유적 사진 / Wikimedia Commons 공개	원문 · CC0
Q06의 아크바르 종교 토론 그림	아크바르 궁정의 예수회 선교사들(『아크바르나마』 삽화)	나르 싱	체스터 비티	원문 ·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2차원 미술품의 충실한 복제
Q13의 황금 사원 사진	황금 사원, 2024	ほっきー	암리차르 종교 시설 사진 / Wikimedia Commons 공개	원문 · CC0
Q15·Q16·확인 17의 타지마할 사진	타지마할 정면	David Castor	아그라 유적 사진 / Wikimedia Commons 공개	원문 · 퍼블릭 도메인: 사진가의 권리 포기(PD-self)
Q16의 타지마할 근접 사진	타지마할의 글씨 장식	Gary Todd	아그라 유적 사진 / Wikimedia Commons 공개	원문 · CC0

연표, 종교 비교, 세금·쇠퇴·문화 도식과 지도는 이 학습지를 위해 직접 구성했어요. 지도 바탕은 Natural Earth의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이용했어요. 공개 그림·사진의 이용 조건은 위 표의 원문을 따라요.